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최성락*, 황혜신**, 차성종***

동양미래대학 경영학부*,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문화체육관광부***

Seong-Rak Choi(haihabar@gmail.com)*, Hie-Shin Hwang(emicetic@hanmail.net)**,
Sung-Jong Cha(sjcha89@gmail.com)***

요약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보다 더 증가시켜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효율성과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비교결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업무 범위는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기들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 제도와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기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논리가 아닌 별도의 논리가 요구된다.

■ 중심어 : | 공공도서관 | 민간위탁 | 생산성 | 비교연구 |

Abstract

There are lot of arguments whether it is necessary to outsource public libraries in Korea. What are the impacts of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it efficient and productive? How is the publicness of public libraries maintained after outsourcing? This article studies public library outsourcing in the U.S, England, Germany, and Japan, and finds implications for Korea.

The results of this comparative study show that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not common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number of outsourcing is slowly increasing. Public library outsourcing does not always enhance productivity and publicness.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is only one of the various managing systems of public libraries, and each county has its own unique library management system. Korea should also develop its own outsourcing policies and strategies regarding public libraries to attain their productivity and publicness.

■ keyword : | Public Library | Outsourcing | Productivity | Comparative Study |

* 본 연구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원기관의 허가 및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I. 서론

어느 한 생산 단위나 조직의 주체가 공공이어야 하는가 민간이어야 하는가는 사회과학에서 오랜 논의의 주제이다. 과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을 담당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부 조직 내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이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신공공관리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등이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모든 공공기관 영역에서 민간위탁 등이 정당화되고 그 효율성이 인정되어 왔던 것은 아니며, 공공의 각 부문에 따라 민간위탁의 효율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최근 한국에서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화가 되는 부문은 공공도서관 부문이다.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정부 조직인 교육청이 직영하는 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크게 구분된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 직영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민간위탁 할 것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민간위탁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며,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간위탁 도서관의 효율성이 높지 않으며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된 논의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해외의 도서관 민간위탁 사례이다. 미국에서의 하와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 일본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 등이 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실패 및 한계에 대한 사례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일정 국가의 어느 한 시점,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해외에서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일반적 추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

본 등 주요 국가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일반적 추세 및 현황,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해외 각국의 사례는 해당 국가의 문화, 특성 등이 반영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독특한 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나 해당 부문의 본질적인 부문을 추출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향후 방향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간위탁

민간위탁(contracting-out)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항에서는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희환(1997)은 민간위탁을 “정부가 최종적인 관리 및 비용부담을 하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기능을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 김승현(1998)은 “정부가 주된 재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서비스 공급은 계약에 의해 민간에서 맡으며, 정부는 사후적으로 지도감독(monitoring)을 하는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정의한 바 있다[2]. 즉 민간위탁은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제공과 완전 민간화의 중간적 형태를 띠는 것으로써,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의 사무·사업을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감독권 등의 행정책임은 유보한 채 민간 영리 또는 비영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다[3].

민간위탁은 정부직접생산, 민자유치, 민영화 등과 대

비되어 활용되는 개념인데, 민영화는 정부의 자산이나 기능을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주체, 서비스 생산 등이 모두 민간에 이전된다. 민자유치는 서비스 주체와 소유는 정부이지만 서비스 생산 부문을 민간이 담당한다. 정부직접 생산은 서비스 주체, 생산, 소유 등이 모두 정부가 담당하는 경우이며, 민간위탁은 서비스 주체, 소유는 정부이고 서비스 생산은 민간이 담당한다. 서비스 구입자도 정부라는 측면에서 민자유치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민간위탁은 서비스계약, 경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4]. 서비스계약은 가장 간단한 민간참여 방식으로 전반적인 책임은 공공부문에 있으나 계약에 의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는 민간의 책임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경영계약은 공공기관이 전체 운영과 유지에 관한 책임을 민간에 이전하는 종합적인 계약이다. 경영계약은 일반경영계약과 이윤공유경영계약으로 구분된다. 임대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민간이 공공부문의 설비를 임대하여 운영, 유지, 경영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양여계약은 고정자산이 양여계약기간 동안 소유권이 민간에게 양여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고정자산이 처음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정부에 이전되는 계약 형태이다.

2.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경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크게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으로 구분되는데, 도서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이루어져온 민간위탁을 공공도서관 영역에서도 받아들여도 되는가 여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추세를 확대할 것인가 여부, 교육청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실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김지봉(2000)은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 위탁 관리 주체 등의 부족과 비전문성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5]. 배순자(2003)는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평가하였는데,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경비절감 수준이 저조하고 검색시스템이나 자료의 구비 수준도 낮다는 평가를 하였다[6].

함요상(2007)은 직영 도서관과 위탁 도서관을 비교하여, 위탁 도서관 효율성의 정도가 직영방식 효율성 정도보다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7], 박영선(2008)은 지방자치단체 직영도서관과 민간위탁 도서관을 비교하여 민간위탁 도서관이 기술효율성, 규모 효율성, 서비스 품질평가 등에서 우월하고, 직영 도서관은 장서수, 총예산, 사서수 등이 높으며, 정부 제어 측면에서도 직영도서관이 우월하다고 보았다[8]. 그리고 Ward(2007)는 7개 도서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민간위탁의 증가가 정부 서비스의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증가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민간위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9].

민간위탁의 효과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어느 일원적인 결과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민간위탁의 성과를 경제적 효율성, 공공성, 고객 만족도 등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각 도서관의 운영 방식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도출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 민간위탁 되는 공공도서관은 신축도서관이 많다는 점 등의 특성이 있어, 도서관의 성과가 진실로 민간위탁에 의한 것인지 확실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3. 해외 도서관 사례 연구

위와같이 현재 한국 민간위탁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민간위탁의 효율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서관 민간위탁의 성격 및 효율성 여부에 대한 주된 근거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해외 도서관의 민간위탁 사례이다.

해외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희운(2000)은 미국 등에서 도서관 아웃 소싱에 대한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론적 논

지를 논의하였으며[10], 이윤희(2001)는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도서관이 위탁관리를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조건,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였다[11].

김영귀(2003)는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사서직이 비정규직화되고 도서관 직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며[12], 광동철(2007)은 일본 도서관의 민간위탁 한계를 논의하는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그 반대운동에 대하여 소개하였다[13].

윤희윤(2008)은 각국의 도서관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 보면서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운영 관리를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현황을 보여주었으며[14], 정동열(2008)은 일본에서 민간위탁의 증가는 사서직의 폐지와 비정규직의 증가를 의미하며, 사서가 전문비정규직의 위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5].

그리고 배순자 외(2008)는 공공도서관이 민간위탁을 원활히 수행할만큼 시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을 겪고, 도서관 위탁은 좋은 위탁이 있을 수 없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위탁된 도서관이 주민에 불편을 야기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직영 체제로 다시 환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6].

4. 본 연구의 의의 및 방법론

현재 한국에서는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을 보다 더 증가시켜야 하는가 여부, 그리고 그동안 직영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도입하여야 하는가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직영인 경우와 민간위탁인 경우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는 중요한 정책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떠한 공공도서관의 운영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실증연구는 연구자마다 그 결과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실증연구의 한계에 의하여, 현재 공공도서관 운영방식과 관련된 주장에서 주된 근거로 제시되는 것

이 해외 사례이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도입한 국가에서 실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였고 현재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된 해외 사례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것은 선진 외국에서는 도서관 민간위탁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설사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많아 문제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에 대한 사항은, 해외 각국의 일반적인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 특정 시점에서의 민간위탁 도서관 사례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도서관 민간위탁의 일반적 추세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범위이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일반 행정업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지, 도서관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장서 및 색인 업무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도서관 업무 전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범위이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논쟁은 사서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도서관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 여부이다.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둘째로는 민간위탁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학적으로 보다 의미를 지니는 것은 현재 민간위탁 현황 이라기 보다는 민간위탁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의 민간위탁 현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민간위탁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해당 국가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미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셋째, 각국에서의 민간위탁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 국가에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지, 그리고 필요

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사항은 해당 국가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논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 수 있다.

비교 대상 국가로는 공공도서관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을 처음 실시한 미국,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영국, 유럽 대륙의 대표국으로서 독일, 그리고 한국 도서관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국의 도서관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 및 문헌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도서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전화 인터뷰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III.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국가별 비교

1. 미국

1.1 공공도서관 현황

미국은 공공도서관 수가 약 9,200여개로 해마다 다소 변동이 있다. 미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연방도서관, 주립도서관, 지역도서관 등이 있는데, 지역도서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도서관은 과반수 이상이 지방자치정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카운티, 카운티와 시의 통합 운영, 여러 지자체의 통합 주체, 사립 기관, 교육청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표 1. 미국 공공도서관 수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9
공공도서관 수	9,207	9,198	9,208	9,217	9,221

자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9) [17]

1.2 민간위탁의 범위

미국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가장 처음 이슈가 된 것은 1995년 하와이 주립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이다. 하와이 주에 있는 50개 공공도서관을 Baker & Taylor(B&T) 사에 운영 위탁하였다.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자체가 하와이 주립 공공도서관에서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1992년에 미

국 도서관 업무 중 민간위탁 비중은 약 10% 정도로 이미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민간위탁은 건물 유지, 일반 사무 분야 등 공공도서관의 특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5년 하와이 주립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의 핵심 사무인 자료 선정 및 색인(cataloging)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1997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소속 모든 도서관을 민간도서관 관리 회사인 LSSI에 위탁 운영하였다. 카운티에 소속된 26개 모든 도서관의 업무 전체를 위탁 운영한 것으로, 이때까지는 도서관 운영의 각 부분들을 민간회사에 위탁경영했지만, 리버사이드 민간위탁은 도서관 운영 전체에 대해서 위탁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즉 미국에서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범위는 일반 사무 처리 업무는 이전부터 존재하여왔으며, 도서관의 핵심 사무인 색인 업무는 1995년도부터 시작되었고, 도서관 전체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1997년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의 범위는 제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3 민간위탁의 추세

1995년 하와이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발생하였지만, 이후 도서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점차 증가하여 왔다. 2009년 현재 도서관 업무에서 외부 위탁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2. 도서관 업무 대비 외부 위탁 비율

도서관 업무의 종류	위탁 비율
collection development	70%
acquisition function	59%
outside binder 활용	79%
마이크로 필름	37%
preservation photocopying	15%
컴퓨터 시스템	51%
cataloging	63%
authority control	55%
value added service (such as spine labels)	27%

자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9)[17]

1995년 하와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크게 논쟁이 되었던 것은 카탈로그 업무의 민간위탁이었다. 그런데 위 표에서 보듯이 2009년도에는 카탈로그 업무의 민간위탁 비율이 63%에 달하고 있다. 여타 업무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공도서관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되던 카탈로그 부문에서도 민간위탁비중이 과반수를 넘게 되어, 그동안 민간위탁 추세가 계속 이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에 시작된 도서관의 운영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은 2010년 현재 약 80개 정도로 추정된다.¹⁾ 도서관 운영 전문 민간기업인 LSSI 사의 경우 2010년 현재 13개 공공도서관 시스템과 67개 지부에 대하여 도서관 전체 위탁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공공도서관 9,200여 개 중에서 1%가 안 되는 것으로 그 절대적 비중은 적지만, 1997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위탁 도서관은 증가되어 왔다. 적은 비율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될 수 있다.

1.4 민간위탁의 정당성

미국의 경우 처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질때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다. 최초로 도서관 고유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1995년 하와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경우, 도서관 측에서는 위탁 이후 자료 공급의 지연, 공급 자료의 부적절, 공급서적의 반फल가, 서적의 복제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서관의 민간위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하와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계약은 종료되는데, 민간위탁 경영으로 인한 비용절감, 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후 도서관 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는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거부 논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도서관 민간위탁

회사인 LSSI 사의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가동 시간의 증가, 인력 감축으로 인한 예산상의 성과, 이용자가 느끼는 도서관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도서관의 경우 민간위탁 된 이후 전체 운영시간, 대출도서 수가 2배 증가하였으며, 구매 예산도 111%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예산은 900,000 달러가 감소하여, 공공성이 증가되면서도 비용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Redding Library의 경우도 고용이 완전히 승계되면서도 예산변동 없이 운영 시간이 50%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 민간위탁에서 중시되는 논리는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때 대출 도서 수, 이용자 수 등의 도서관 성과 지표가 높게 나올 경우 민간위탁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성 성과가 적을 경우 민간위탁 계약이 취소되었다. 민간위탁 그 자체에 대해서 찬반 주장이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민간위탁의 효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효율성이 보다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탁이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효율성 인정 여부는 각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일본

2.1 공공 도서관 현황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립 도서관 및 민법법인이 설치하는 사립 도서관을 총칭하여 일컫는다.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구립 도서관과 초촌립 도서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 현재 일본의 공공도서관 수 및 설립 주체는 다음과 같다.

표 3. 일본 공공도서관 현황

설립 주체	도도부현립	시구립	초촌립	광역시초촌권	사립	합계
설치지치단체 (설치율)	47 (100%)	793 (98.4%)	528 (53.1%)			
도서관총수	62 (2%)	2,469 (78%)	612 (19.4%)	1 (0%)	20 (0.6%)	3,164 (100%)

1) 미국 공공도서관 협회에서는 전체 민간위탁 도서관에 대한 현황 및 통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수치는 전체적인 조사에 의한 확실한 수치로 소개되고 있지 않으며, LSSI 도서관 민간위탁 회사인 LSSI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그리고 각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도서관 민간위탁 사례 연구들을 취합하여 추정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부분위탁 현황의 경우도,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공공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이다.

2.2 민간위탁의 범위

일본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부 기능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전부터 가능하였으나, 2003년 이전에는 도서관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03년 6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정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정관리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의 권리, 권한, 책임을 보유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정관리자 제도는 시설의 관리 권한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시설 위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정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3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논의는 주로 기관 전체에 대한 위탁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2.3 민간위탁의 추세

일본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부 기능에 대한 부분위탁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2005년에는 전체 도서관의 61%에서 부분 위탁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도서관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데, 2003년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으로 도서관 전체 위탁이 가능해졌다. 2003년도 이후 민간위탁 도서관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전체 도서관의 1% 정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고, 2009년도에는 6.4% 정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다.

표 4. 일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현황

수탁 기관	민법 43조의 법인	회사	NPO	기타	소계(%)
도도부현	1	2			3(5.0)
시(구)	40	99	20	12	171(7.5)
초	9	6	7	4	26(4.8)
촌	1		2		3(7.1)
계	51	107	29	16	203(6.4)

자료: 윤희윤(201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모색 181.

일본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주로 시구 도서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공공도서관 중 6.4% 정도가 민간위탁 되고 있는 것은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없으나, 위탁운영 제도가 2003년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도에는 약 1%가 전체 위탁 운영되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본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민간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될 수 있다.

2.4 민간위탁의 정당성

일본의 경우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도서관 비용 절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민간위탁 도서관의 효과 측면에 대한 논쟁은 많지 않다. 일본 도서관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보다 문제시 되는 것은 도서관 직원, 특히 사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일본 도서관이 정부에 의해서 운영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그리고 연공서열 구조의 특성상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민간위탁 될 경우 그 직원은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게 되며,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출되는 각종 혜택도 더 이상 부여되지 않게 된다. 미국의 경우 도서관 직원은 도서관 직원으로서의 전문성에 더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일본의 경우 공무원인가 아닌가 측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리고 도서관 민간위탁은 공무원 수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목적에 따라 일본에서는 도서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서직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비정규직 비율 변화는 거의 없고 사서직이 계속 우대받는 것에 비교할 때, 이러한 인적구조의 변화는 일본 도서관 민간위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영국

3.1 도서관 현황

영국의 일반 공공 도서관은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분된다. 2008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은 4,540개가 존재하며, 대학 도서관은 946개, 국립도서관은 6개가 있으며, 총 5,492 개가 존재하였다. 이

외 특수 도서관이 별도로 약 3,000여개 존재하고 있다.

표 5. 영국 도서관 현황

	2007-08	2002-03
Public libraries	4,540	4,620
Academic libraries	946	856
National libraries	6	6
총계	5,492	5,482

자료 : LISU.(2009). Annual Library Statistics[19].

영국의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데, 주로 지방자치단체 내의 교육 및 문화국이 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미국의 Central-Branch 도서관 네트워크와 유사하게, 한 지방자치구가 관할하는 행정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공공 도서관들이 하나의 Central 도서관을 중심으로 Branch 도서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2 민간위탁의 범위

영국 공공도서관에서 일반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은 도서관 고유 업무인 장수 구매, 분류, 목록 업무인데, 현재 이러한 색인 등 도서관 고유 업무에 대해서도 전체 도서관의 약 50% 이상이 민간위탁 내지 아웃 소싱되어 처리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도서관 고유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도서관 운영 전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도서관 전체 운영 위탁이 가능하고, 미국의 도서관 위탁운영 업체인 LSSI가 영국에도 진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도서관 전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3 민간위탁의 추세

영국의 경우 도서관 민간위탁이 가장 먼저, 그리고 큰 반대없이 이루어진 국가로서 영국에서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이 도입된 이후 민간위탁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왔다.

현재에도 도서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도서관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 민간위탁에 대한 추세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4 민간위탁의 정당성

영국의 경우 민간위탁, 아웃 소싱 등의 사상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이 산출된 국가이다. 정부의 활동 범위를 감소하고 민간의 활동 범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하에서 영국 정부가 수행하던 많은 업무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가 수행하던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국의 경우 정부 업무를 민간에 이전한다는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하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것기에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특별한 논란이나 반대가 존재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도서관 고유 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발생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도서관 직원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영국은 그러한 가시적인 큰 반발이 없이 자연스럽게 도서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 왔다.

4. 독일

4.1 공공도서관 현황

독일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이 주축을 이룬다. 2008년도 기준 공공도서관은 8,548개, 대학 도서관은 236개가 있어 총 8,784개의 도서관이 존재한다. 공공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97.3%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국립도서관, 주립도서관, 기타 시·지역 도서관으로 구분되는데, 국립도서관은 5개, 주립도서관은 27개, 기타 시·지역 도서관이 8,516개로, 99.63%가 시·지역 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표 6. 독일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 수	비율
Public Libraries	8,548	100%
국립 도서관	5	0.06%
주립 도서관	27	0.32%
기타 시, 지역 도서관	8,516	99.63%

자료 : Deutsche Bibliotheksstatistik(DBS). (2009)[20].

4.2 민간위탁의 범위 및 추세

독일의 경우 공공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서, 색인 업무 등 도서관의 핵심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례가 없는 것은 물론, 도서관 전체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등에서도 동일한 현상으로, 유럽 대륙 내에서는 도서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리고 독일 내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서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3 민간위탁의 정당성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은 1980년대 미국 및 영국에서 시작한 신공공관리의 영향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신공공관리가 주된 이념으로 부각된 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계 국가와 유럽에서는 스웨덴 등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이러한 영미계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영미계 국가가 아닌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는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도서관은 국방과 더불어 가장 공공적인 영역으로 인정받는 부문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영미계의 민간위탁 시행 국가라 하더라도 공공 서비스 부문 중에서 가장 최후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문이 공공도서관 영역으로서, 실제 미국, 영국 등에서는 다른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최후의 공적인 영역으로 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독일 등 대륙계 유럽국가에서는 영국, 미국과 같이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이 전 방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고, 따라서 독일 등에서 공공도서관은 아직까지 가장 강한 공적인 영역으로 남아있다.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지방정부에 의해서 직접 운영되고 있다.

IV. 국가별 민간위탁 비교의 시사점

1. 민간위탁의 범위

민간위탁과 관련된 국가별 논의를 비교할 때 가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민간위탁의 범위이다. 처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논쟁이 시작된 것은 1995년 미국 하와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다. 그런데 미국 하와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공도서관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카탈로그 기능에 대한 민간위탁이었다. 이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였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그 기능에 대해서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관련 논의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공공도서관 전체 운영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일본에서도 각 기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도서관 전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가, 그 효율성과 공공성은 어떠한가의 문제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논의에서 초점을 이루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전체 운영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2. 민간위탁의 추세

해외 사례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미국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실패 사례와 작은 비중, 일본 민간위탁 도서관의 작은 비중 등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의 미래를 보다 잘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중이 어떠한가보다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비록 최초로 이루어진 하와이 민간위탁 도서관 등이 실패하였지만, 민간위탁 도서관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적지만 그 수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서 업무 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 위탁도 조금이나마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민간위탁 도서관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여 민간위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나 향후 감소될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영국의 경우에도 도서관 업무로서의 민간위탁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서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은 도서관 민간위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3. 민간위탁의 정당성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경향 내지 추세라기보다는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을 채택한 국가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을 적극 채택했던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활성화되어 있다. 하지만 신공공관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유럽 대륙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주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국가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추세는 아직 미국 및 영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미국, 영국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을 쫓아가는 일본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을 수용하지 않은 독일의 경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국가가 채택하고 추진하는 이념 및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며, 그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화된 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신공공관리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을 받아들이는 논리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하에서 큰 반발 없이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만, 미국의 경우 과연 정말로 도서관 민간위탁이 효율적인가 하는 논의가 존재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위탁 도서관 내에서 더 이상 공무

원이 될 수 없는 도서관 직원 신분에 대한 논의가 존재한다. 같은 신공공관리 패러다임 하에서도 신공공관리를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근거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표 7. 민간위탁의 국가간 비교

구분	민간위탁의 범위	민간위탁의 추세	민간위탁의 정당성
미국	일반업무, 사서업무, 전체업무(사서업무에 초점)	증가	효율성
영국	일반업무, 사서업무	증가	신공공관리
독일	X	변화없음	공공성
일본	일반업무, 사서업무, 전체업무(전체업무에 초점)	증가	비용절감(인건비에 초점)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범위와 추세, 정당성 논리 등을 파악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미국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도입하는 초기에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고, 또한 하와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서와 같은 실패 사례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고유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후 일반화되었고, 현재 도서관 운영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도부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되었고, 현재 203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은 도서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신공공관리의 국정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공공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는 도서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기들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 제도와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즉 공공도서관 해외 사례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효율성 내지 공공성에 대한 정책 판단의 일원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한국 사정에 적합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방식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존재한다.

참 고 문 헌

[1] 오희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현황 및 평가”, 지방행정정보, 제61권, 1997.

[2] 김승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계약공급에 관한 연구 : 노원구의 위탁시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정보, 제3권, 제2호, 1998.

[3] 박순애,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7권 제1호, pp.101-131, 2009.

[4] 한영주, 조임권, 손석희, 배재준, “서울시 행정서비스 민간활력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1998.

[5] 김지봉, “공공도서관 경영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 위탁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 2000년도 제38회 전국도서관대회 라운드 테이블 발표자료, pp.15-37,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

[6] 배순자,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사업평가를 통해 본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의 함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 pp.79-8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7] 함요상,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전환의 논거 -공공도서관서비스의 공급방식 간 효율성 비교를 중심으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정책학회, pp.369-394, 2007.

[8] 박영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성과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8.

[9] Ward and C. Robert, The outsourcing of public library management, Administration & Society,

Vol.38, No.6, p.627-648, 2007.

[10] 윤희윤, “도서관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1권, 제3호, pp.1-2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0.

[11] 이윤희, “해외민간위탁 도서관 사례”,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운영에 관한도서관 운동연구회 토론회 발표 자료, 2002.

[12] 김영귀, “일본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과 사서직의 위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4권 제2호, pp.119-14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13] 광동철,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과제에 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 pp.383-404,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7.

[14]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분석과 해법”,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 pp.3-26,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8.

[15] 정동열, “서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정독도서관 연구보고서, 2008.

[16] 배순자, “도서관 민간위탁 경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보고서, 2008.

[1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condition of US Library : Public Library Trends, 2002-2009*, 2009.

[18] 윤희윤, *공공도서관경영론*, 태일사, 2010.

[19] LISU, *Annual Library Statistics*, 2009.

[20] *Deutsche Bibliotheksstatistik(DBS)*, 2009.

저 자 소 개

최 성 락(Seong-Rak Choi)

정희원



- 2006년 8월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양미래 대학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문화 정책, 레저 정책

황혜신(Hie-Shin Hwang)

정회원



- 2004년 8월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2005년 1월 ~ 현재 :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부장 / 연구위원

<관심분야> : 행정개혁, 정책평가, 재정예산, 사회문화정책

차성중(Sung-Jong Cha)

정회원



- 2010년 8월 : 성균관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졸업(문학박사)
- 2007년 8월 ~ 현재 :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현 도서관정책과 근무)

<관심분야> : 도서관 경영, 도서관 정책, 정책평가, 이용자 연구